

171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38) 내구성이 없는 니트 주름 가공품

□ 내구성이 없는 니트 주름 가공품

해설)

- 울 50 %, 아크릴 50 %로 된 여성용 스웨터를 드라이클리닝 했는데, 주름가공된 주름이 풀렸음. 천 상태를 상세하게 관찰하면, 주름가공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, 드라이클리닝 후에 주름이 소실되었음.



- 주름가공은 단지 프레스 압력만으로 실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각각의 소재에 따른 형태안정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됨. 울의 경우는 시로 셋(CSIRO-set) 가공으로 대표되는 약제에 의한 가공이 가장 내구성이 높은 가공 방법으로 알려져 있음. 또 아크릴 섬유의 경우, 합성섬유의 열가소성을 응용하여 가공되고 있음.
- 본 제품의 경우는 울 50 %, 아크릴 50 %의 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품화된 후에 열고정만으로 가공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.

- 또, 이러한 소재 구성의 니트에 주름가공을 하는 것은 내구성 면에서 위험이 크므로, 일반적인 가공방식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음. 그 이유는 니트의 경우, 섬유의 밀도가 영성하고,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클리닝 등의 공정에서 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회전될 수 있으므로 주름이 소실되기 쉽기 때문임. 본 제품의 실체현미경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속된 주름의 골 부분이 실의 회전에 의해서 도중에 어긋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종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